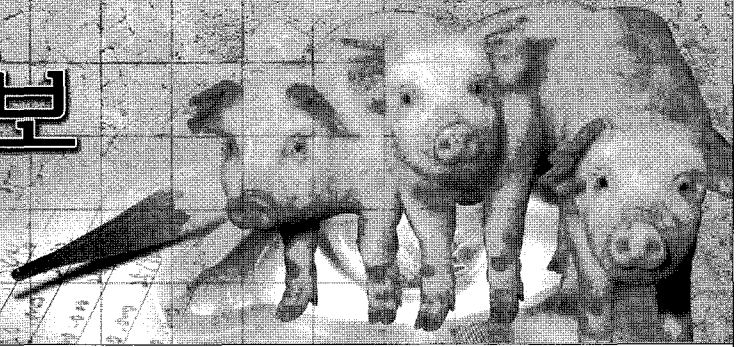


축산정보



3월 돼지 사육두수 전년동기비 1.9% 감소

- 총 사육두수 883만8천두, 전분기 대비 7만두 감소

3월 돼지 사육두수는 총 883만 8천두로 전분기('04년 12월) 대비 0.8%(7만두) 감소하고, 전년동기대비 1.9%(16만8천두) 감소했다.

농림부는 최근 3월 가축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사육두수가 이같이 감소한 것은 축산분뇨 처리 및 소모성 질병, 지난해 폭염 등 영향에 의해 생산성이 저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17 page 참조>

한국에 미국산 돼지고기 물러온다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쇠고기 공급량이 감소해 한국 쇠고기 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한국 내 돈육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와 콜라라도의 미국육류수출입협회(USMEF)는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냉장돈육 판매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미육류수출입협회 대표단들은 최근 부산의 250개 음식점을 대상

으로 이들 동안 질 좋은 미국산 돈육을 소개했으며, 미국산 돈육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원에서는 200개소의 돼지고기구가 음식점과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미국 돈육과 요리 등을 소개했다.

돼지고기 수입 큰 폭 '뿔박질'

- 1분기 돈육수입량 지난해 총 수입의 반 이상 넘어

1~3월 돈육 수입량이 총 5만6천81톤으로 지난해 총 누계 10만 8천829톤의 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월대비 57.5%나 늘었다.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수입검역통계 3월 하순 조사에서 이번 달 돈육 수입량은 총 2만4천 160톤으로 전월 1만5천337톤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삼겹살과 목

심 수입량은 여전히 많았다.

국별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칠레 순으로 많았으며 모두 각각 2천톤씩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미국산은 3월 총 6천120톤, 캐나다 2천867톤, 프랑스 2천855톤, 벨기에 2천287톤, 칠레 2천 169톤이 각각 수입됐다.

또한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1만 6천60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심이 4천735톤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됐다. 갈비는 3천670톤, 앞다리살 2천158톤, 뒷다리 257톤, 등심 192톤, 안심 94톤이 수입됐다. 한편 냉장돈육과 냉동돈육은 각각 595톤, 2만3천565톤이 수입됐다.

양돈업 등록률 36%

농림부에 따르면 3월 29일 현재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 3만9천824

■ 국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단위 : 톤>

국 별	미 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칠 레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3월중 수입량	6,120	2,867	2,855	2,287	2,169	1,269	1,269	950
1~3월 수입누계	13,256	5,446	6,806	5,738	6,525	3,126	3,126	1,856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멕시코	스웨덴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소계
933	849	755	453	294	181	111	34	24,160
2,122	3,051	1,601	890	477	322	252	55	56,081

호 가운데 48.9%인 1만9천491호 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등록현황을 보면 부화업 종축업 계란 집자장은 100% 달성했다. 하지만 한육우는 69.4%, 낙농 24%, 양돈 35.6%, 양계 48.8%, 오리 21.5%로 집계됐다. 양돈업의 경우 1만262농가 가운데 3천658호가 등록을 마쳤다.

농림부, 양양군 '특별재난 지역'에 긴급 영농지원

농림부 영동산불중양수습본부는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군 피해지역에 신속한 농업복구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박홍수 농림부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영농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는 농축산 영농자금 상환기간이 1년간 연기되고, 이자가 1~2년간 면제된다. 또한 재난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선정, 통보를 받아 이미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이전에 영농에 긴급히 필요한 자재를 가능한 한 무상으로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산불로 사료 등이 소실된 축산 농가에게는 배합사료와 건초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영농에 필요한 팽이, 쇠스랑 등 소농기구 1천440점을 무상 공급한다.

"구제역 예방 위해 전방위적 노력 기울여야"

- 농림부, 시·도 및 관계기관에 구제역 예방 철저 당부

최근 국내에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 단체, 농가 등이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홍콩에서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해 홍콩 방역당국 뿐만아니라 국내 방역당국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홍콩내 성수이 도축장에서 16마리의 소가 구제역 증상을 보여 홍콩 방역당국은 3월 23일 국제수역사무국(이테)으로 발생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 바이러스는 Asia-1형(중동아시아 발생)으로 판명됐으며, 구제역 바이러스 타입 O형은 현재 홍콩에서 상존하고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Asia-1형은 아직까지 홍콩에서 확인된 바가 없는 바이러스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시·도 및 관련단체에 외국인 연수생 및 외국 현지 양돈장 등 경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검역원에도 홍콩 등 동북아시아 여행객에 대한 신발 소독 및 휴대축산물 등 검

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돈농가들은 외국 여행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소독제 사용요령을 준수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살충·구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1588-4060으로 신고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약취검사기관 지정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21일 '약취방지법'에 의거 지정된 약취검사기관을 공고했다.

지정된 기관으로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대표 김현), 그린전남환경종합센터(대표 전준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대표 이기동),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대표 김용희)이다.<표>

농림부,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사업 도입

- 3년간 6개소에 58억원 지원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 지

■ 약취검사 기관

기관명	소재지	검사항목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감나무길 14	복합약취
그린전남환경종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산9-3	복합약취,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l-발레르알데하이드, 스타이렌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2가 797-3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0-1	복합약취,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스타이렌

원사업이 펼쳐진다. 이는 농림부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시범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돼지·소·닭 사육농가가 기존의 축사시설을 가축사육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 지원돼, 종돈장 2개소, 양돈장 1개소 등 총 6개소에 58억원이 지원된다. 개소당 지원사업비는 종돈장 15억원, 양돈장 7억원, 종계장 10억원 등으로 사업물량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3.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장·단기적 발전방안 모색

- 직불금 인상 및 사업적용기간 장기화 필요

농림부는 최근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실태분석 및 경제적 효과분석, 직불금의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수록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작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환경친화적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특정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을 향상시키고, 환경부담을 경감하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친환

경축산 직불제가 도입되면 가축분뇨 발생량 감소로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직불제 단기적 발전방안으로 기존 사업량 배정방식에서 지역집중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법, 직불금을 45% 정도 인상하고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방법, 사업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한국형 유기축산 기준 마련, 소득 보전방식을 비용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책담당자에게 적정 지불금액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돼지의 경우는 3,053.8원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농가의 친환경축산 직불제 50%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는 돼지 28,000원/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됐다.

2005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돌입

2006년 1월 두 번째 우수 축산물브랜드 선정을 위한 인증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 31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차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위원들은 올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인증지침(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인증희망경영체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5월 11일 2차 인증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대상 브랜드를 선정해 5월~12월까지 3회 이상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 3차 인증위원회에서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경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최영열 회장, "가축 사육두수 제한해서는 안될 것" 강조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3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축산업과 농업은 상생의 관계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축산분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고, "최근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축산업이 제2의 식량산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식량산업을 수입 농축산물에 뺏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친환경 농업 발전 대토론회에서는 농경연 김창길 연구위원의 제1주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발표와 농경연 송주호 연구위원의 제2주제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

안 발표 등과 지정토론자 발표 및 토론회가 있었다.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 필요하다”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시연회 개최



농림부는 광우병 등 질병 발생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해 도입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이 판매단계까지 구축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등 축산단체장과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등 소비자단체장, 유관기관 단체장, 시범업체 및 관계자, 언론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인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둔갑판매 적발이 가장 높은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나만의 돼지고기 ‘복주머니 된장 샤브’ 최우수상

- SBS TV 「여자플러스」 요리경연대회 성료

SBS TV 생활정보프로그램인

농단협 신임 회장에 엄성호씨 선출



엄성호 회장

전국농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에 열린 2005년 정기총회에서 농단협 신임회장으로 엄성호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최영열 대한양

돈협회장, 목찬균 새농민회장, 최성희 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을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정해운 양봉협회장, 류재춘 관광농원협회장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엄성호 신임 농단협 회장은 “농민단체들의 역할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자플러스」에서 실시한 돼지고기 요리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3월 19일(토)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토파즈홀에서 열린 ‘나만의 돼지고기 요리경연대회’에는 SBS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총 362팀 중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팀이 출전해 솜씨를 자랑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 전·후지를 활용한 요리법들이 선보였으며, 최우수상은 ‘복주머니 된장 샤브’를 출품한 최희정씨 가족에게 돌아갔다. 또한 우수상은 ‘돌돌돌-돌돌이말이와 안심샐러드’를 출품한 김민현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최영열 위원장(양돈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를 활

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전 국민에게 널리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꾸준히 늘어

- 작년 1인당 육류소비량은 감소

지나해 우리나라 1인당 육류소비량이 감소한 가운데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7.9kg으로 전년도 17.3kg보다 3.5% 증가했다. 또한 '90년 돼지고기 소비량이 11.8kg, '99년 16.1kg, '00년 16.5 kg, '02년 17.0kg, '03년 17.3kg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쇠고기(6.8kg)와 닭고기(6.6kg)를 합친 양보다 많으며, 이는 쇠고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큰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신규진입이 어려워 국내 공급량이 소비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해 미국, 덴마크,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PED 발생농가, 임상검사 후 도축장 출하 가능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농가 중 도축장으로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는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한 돼지에 한해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농림부는 봄철 환절기에 주로 자돈에 발생하고 있는 PED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차단방역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에는 PED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질병 발생시 발생농장 가축에 대해 이동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PED가 주로 자돈에만 걸리는 역학적인 특성을 감안해 이동제한 기간 중이라도 발생농장주가 도축장으로 도축을 희망할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한 돼지에 한해 도축장으로 출하토록 조치할 것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개정 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기로 했다.

돼지의 경우 해당 동물용의약품은 염산린코마이신, 바시트라신아연,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살리노마이신, 설파치아졸+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페니실린, 아빌라마이신, 아프라마이신, 옥신티트라싸

이클린4급암모늄+황산네오마이신, 엔라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4급암모늄,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타이로신, 티아무린, 페니실린, 펜벤다졸, 황산네오마이신, 황산클리스틴이다. 현행 해당 약품에서 삭제된 품목은 이버멕틴, 치오펜틴, 카바독스 등이다.

축산물안전관리협의회 구성기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물안전관리협의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축산물안전관리협의회를 통해 위해상황 발생시 사안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평상시에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평가방법을 협의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관한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4월중에 제1차 축산물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대비 민감품목에 돼지고기 포함

한-아세안 FTA 대비 농산물 민감품목에 돼지고기도 포함된다. 지난 3월 24일(목)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FTA 관련 간담회에서 농경연은 한-아세안 FTA 추진 대비 민감품목 예비선정(안)과 관련해 '돼지고기'는 검역상의 이유로 아세안으로부터 수입 실적은 없지만

태국 등이 1천700만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시설건설팀 전기·환기 시설 점검

최근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종합점검 사업이 양축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사시설 종합점검 사업이란 작은 축사화재와 관련 축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누전, 합선)과 환기 등을 사전에 전문가가 점검하는 사업이다.

농협중앙회 시설건설팀이 실시하는 이 사업은 지난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전국 1,500호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1인당 지급한도 규정

농림부는 부정축산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1인당 포상 지급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시 1인당 지급한도가 없어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전문 신고자 양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가공기준 위반, 무허가·미신고 영업,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유통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돈연구회, 제7회 신기술양돈 워크숍 개최

- 5월 17일~18일 천안시 문예회관에서

한국양돈연구회는 오는 5월 17일(화)~18일(수) 충남 천안시 문예회관에서 '브랜드육 생산과 번식성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회 신기술양돈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국 사천 농업대학교 쉐다이윈 박사 '중국 양돈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축산연구소 연구관 김영화 박사 '브랜드화를 위한 양돈가 준비 사항', 다산중돈 대표 박화춘 박사의 '국내 브랜드 돈육 문제점 및 브랜드를 위한 선진국 육종 방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상철 박사 '2005년 축산물 브랜드 육성 정책 방향', 양돈컨설팅연구소 안기홍 대표 '일본 브랜드 돈육 생산 전략 및 사례'가 발표되며, 그밖에 인공수정을 활용한 번식성 활용 방안, 유산 방지를 위한 질병 및 사양 관리, 하절기 번식 저하 피해 및 극복 사례, 번식성 향상을 위한 하절기 모든 영양 관리 등 번식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비육돈 항체양성률 '양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94.3%, 1월 94.4%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 이어 항체양성률이 100%였으며, 강원도 97.3%, 경북 97.8%로 높

게 기록됐다.

한편 꾸준히 90% 이상을 기록하던 전북은 89.7%로 떨어져 앞으로 농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는 93.6%, 충북 96%, 충남 96.4%, 전남 91.7%, 경남 93.4%를 기록했으며, 항체 80% 미만 지역은 각각 경기 연천, 전남 신안, 영광 3개 시·군이다.

북한, 조류독감 발생 확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조류독감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닭 수십만 마리를 소각, 매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평양 내 최대 규모 닭 농장인 하당닭농장을 비롯해 다른 몇 개 닭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가 문제를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조류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H5N1 바이러스 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합천 축산사료유통센터 준공

합천지역내 양축농가들이 설립한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가 최근 준공을 마치고, 지역내 축산농가들에게 양질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 2003년 8월 합천군과 지역 축협, 양돈협회, 한우협회가 힘을 모아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를 설립

한 이후 지난 해 7월부터 배합사료 생산량 월 3천톤 규모의 유통센터 착공을 시작해 9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1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양질의 가축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양돈협회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에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가 원료 곡물수급 등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료 곡물수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돼지 도축두수 지속 감소

- 2월 102만1천101두 도축, 전년비 12.7% ↓

도축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부는 2월 돼지 도축두수는 102만1천101두로 전월 120만4천480두보다 15.2% 감소하고, 전년 동월 116만9천628두보다 1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돈사료 감소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4.1% ↓, 전월대비 9.3% ↓

2월 양돈사료량이 1월에 이어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2월 양돈사료량은 40만1천톤으로 전월 44만2천톤보다 9.3%(4만1천톤) 감소, 작년 2월 42만1천톤보다 4.8% 감소했으며, 1~2월 누계는 84만4천톤으로 전년동기 88만톤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